

“꿈 꾸고 노력하면 이뤄지리라 믿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⑨ 독학하며 통역사 꿈꾸는 당찬 열여덟 수정양

다문화가정 2세인 최수정(18·새남 학교 졸업반)은 며칠 전 화순 전남 병원 외과 진료 대기실에서 러시아인 밀레나(가명·여·26)씨를 만났다. 몸이 아픈 그녀를 위해 통역을 자처한 것이다. 간호사가 “밀레나”씨를 부르자, 수정양은 밀레나와 함께 진료실로 갔다.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묻자, 최양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밀레나씨에게 “그제 우 와스 불릿?”이라고 전달했다. 밀레나씨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발쯔 불랏?”이라고 답했다. 최양은 의사에게 “발가 락이 아파서 왔대요”라고 전했다.

밀레나씨가 최양의 도움으로 20여

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면 꼭 멋진 통역사가 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통역과 번역을 위해 매일 한 시간 이상 한글과 영어,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다. 우선 서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생활을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초·중학교를 나온 최양은 15살의 나이에 ‘한글 기초반’부터 공부해야 했다.

학교에서 내준 한글 숙제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중장비 운전은 하는 아버지는 너무 바빴고, 어머니 역

자신의 아픈 부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안 뒤부터다.

어머니는 최양보다 3년이나 먼저 한국생활을 시작했지만 언어가 서툰 나머지 의사 진찰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최양은 어머니의 병원에 따라가 통역을 했고, 어머니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최양은 어머니 외에도 많은 이주 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 때문에 병원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꿈이 더욱 확고해졌다.

최양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물론, 영어와 우즈베키스탄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사가 되고 싶다.

4년제 대학교의 러시아학과에 입학하고 싶지만 아직 새남학교의 정식 인가가 없어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조만간 학교의 인가가 날 것으로 믿고 있는 최양은 만약의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장을 딴 뒤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에게 또 하나의 난관이 있다. 아버지는 중장비 운전기사 일을 하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최양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양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방과 후에는 매일 낚시고를 만드는 공장에서 3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하루 1만원. 차곡차곡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 꿈도 한 발짝 다가온 것 같다.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틈틈이 통역과 번역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최양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매일 대깨미 공부할 수 있어 마음만은 누구 못지 않게 넉넉하다.

최양은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있어 행복해요. 꿈 꾸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새남학교에서 다문화가정 2세인 최수정(오른쪽)이 학교 후배인 몽골 출신의 김빌군(17)군과 키르키스탄 출신 김도경(17)양에게 한글과 러시아어를 알려주며 활짝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병원 가도 증상 설명 못하는 어머니 모습 안타까워 이주여성들에 무료 통역 해주는 통역사 되는게 꿈 “일하고 공부하기 벅하지만 마음만은 늘 넉넉해요”

분 진료 상담을 받았다. 한국인 환자보다 2배 가량 시간이 걸렸다. 밀레나씨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최양에게 “스바시보(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이어 최양의 두 손을 꼭 잡은 밀레나씨는 눈시울을 붉혔다. 밀레나씨는 그동안 발이 아파 걸음이 불편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병원 진료를 미뤘왔기 때문이다.

최양은 “제가 하고싶어서 온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미소를 지으며 연락처를 건넸다.

러시아어 통역사가 꿈인 그녀는 다문화가정 2세대. 3년 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어머니(38)를 따라 새 아버지(47)가 있는 한국으로 왔다.

최양은 지난 8월부터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통역 및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최양은 통역과 함께 입퇴원 서약서와 수술 후 주의사항 점, 기구 사용법, 스트레칭 방법 등 한글로 된 의료 서류 60여장을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매번 최양이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안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양은 “번역과정에서 어려운 의료용어들이 나오면 더 공부해야 한다

시 한글 실력이 부족했다. 최양은 두꺼운 한-러 사전은 매일 갖고 다니며 독학을 해야 했다.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가질까봐 노심초사했던 적도 많았다. 경기도 안산의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사촌 오빠(19)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많았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입학할 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현실에 맞서자’란 생각을 했지만 편견 어린 시선을 느낄 때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하지만 영원한 이방인이 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서툰 언어를 고쳐야 했다. 최양은 새 아버지처럼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한글 공부에 전념했다. 그 결과 최근 한국어 3급 시험에 합격했다. 학교 성적도 상위권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에서 주최한 작문대회에서 ‘한국에서의 나의 삶’이란 주제로 1100자 한글 작문을 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최양이 러시아어 통역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올해 초다. 자주 감기에 걸리던 어머니가 병원에 갔지만

■기고

다문화시대와 자녀교육

석창원 목사

최근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그에 따른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경제력이 취약한 다문화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김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문제가 다문화자녀들에게 충격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말이다.

최근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대략 이렇다. 먼저 한국의 교육과정과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외국어의 교육수준이 낮은 점도 있고, 엄마들의 한국어 수준도 낮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자녀들의 이중 언어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초기 학습능력은 두드러지게 낮다.

이러한 현상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다문화 자녀의 전형적인 학습유형이라는 연구 보고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 면담이나 학부모모임에 엄마대신 고모가 가는 경우도 있다.

가정실태조사에 엄마 이름을 빼거나 한국어 이름으로 고쳐 적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국적을 취득해 이름을 올릴 때에 한국의 연예인 이름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부르기 쉬운 한국 이름을 갖고 싶어하는 내면에는 차별받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

끝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편견을 경험한 다문화 자녀들의 미래 모습이다. 초등학생들이 사이 좋게 지내다가 시비 끝에 ‘000(나라이름) 새끼가’-하고 분풀이를 했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에서 응어리진 이 상처가 머지않아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몇 사례에서 보듯 이미 한국사회는 ‘멍든’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재정 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선교회 대표>

광주광역시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짝!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